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HELP University
파견기간	2018. 8. 8. ~ 2018. 12. 14.
프로그램	정규 /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1) 유학생 보험

트래블 로버라는 사이트에서 DB손해보험으로 신청했다. 금액은 23만원 정도였다

2) 비자

말레이시아 교환학생으로 가려면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싱글엔트리 비자도 필요하다. 싱글엔트리 비자는 말레이시아 입국 시 필요한 비자이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나오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가서 싱글엔트리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발급기간은 5-7일 정도인데 넉넉하게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학생비자 승인이 보통 출국 한달 전에서 2주 정도에 나오기 때문에 싱글엔트리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1주일까지 잘 계산해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실제로 같이 갔던 친구 한명은 비자 승인이 늦게 나서 항공권을 두번이나 미뤘다.)

3) 항공권

출국 해야 하는 날짜가 거의 다 돼서 구매하느라 항공권이 비쌌다. 말레이시아 AIRASIA 항공이 가장 저렴하다. (36만원 정도)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싶었으나, 종강날짜가 확실하지 않았기 편도로 구매했다. (종강 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말레이시아의 날씨는 한국의 여름보다 덥지 않다. 또한 냉방시설이 너무 잘돼있기 때문에 반팔과 얇은 긴팔을 섞어서 가져가는 게 좋다. 겹옷(남방, 후드 집업 등) 필수. 또한 우기에는 비가 정말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오기 때문에 우산은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 또 내가 가져간 물품 중에 유용했던 것은 멀티탭과 기내용 캐리어다. 변압기에 멀티탭 하나만 꽂아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 기내용 캐리어는 중간중간에 여행할 때 정말 유용했다. 기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수하물을 추가하지 않아서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캐리어 하나와 기내용 캐리어 두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를 사용한다. 물론 HELP대학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다. 노점상이나 푸드트럭에서 먹는다면 1500원으로도 식사해결 가능.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일단 말레이시아의 타 국가보다 저렴한 물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에 더해 헬프대학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대학교이고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나-2. 공항 - 학교

하지만 생각보다 시설이 좋지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캠퍼스가 아니며 그냥 빌딩 하나가 학교이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나는 SAP 프로그램이었음으로 들어야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었다. 크게 Intensive English Program(IEP) 과 America Degree Program(ADP)을 들어야 하는데, 전자는 레벨2-6까지 있으며 출국 전에 봤던 레벨테스트 결과로 각자의 레벨 반으로 배치 받는다. 월-금, 8:30am-12:30am, 3주 과정이며 총 50점을 넘으면 다음레벨로 올라간다. 총복대는 이 과정을 총 3개를 들어야한다. 즉 레벨 3단계 통과해야 한다. 주로 문법과 영어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 프로그램은 헬프대학에 오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현지인은 없고 유학생들뿐이다.) 문법시험 2번, 쓰기시험 2번, 리스닝테스트 1번, 스피킹(발표) 1번과 마지막 Final exam을 총 3주에 나눠서 본다.

후자는 헬프대의 교양수업이다. 따라서 현지인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다. 전자 보다 후자가 난이도가 더 높다. SAP 학생은 기본적으로 College Writing1과 Basic English를 듣기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수업으로 바꿀 수 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셰어룸 등)

헬프대학교의 기숙사의 이름은 Wisma Lensa다. 한 유닛에 방이 3개 있으며 거실과 부엌, 화장실은 공용이다. 보통 6명-7명이 한 유닛에 산다. 또 유닛마다, 방마다 옵션이 다르다. 취사가 가능한 곳,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있는 곳 등(물론 이에 따라 가격도 다름) 나는 마스터 룸을 신청했다. 마스터 룸은 전부 갖춰져 있으며 3인 1실에 방 내부에 화장실도 있다. 기숙사 내에 식당은 없다. 요리하거나 사먹거나 배달음식. 시설은 열악하지만 수리에 있어서는 피드백이 빠른 편이다. 빨래는 매주

수요일에 가져가서 토요일쯤에 온다. (요금은 7키로 이하, 8.5링깃) 하지만 종종 옷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내 빨래통에 다른 이의 옷이 들어있을 수 있다. 또 빨래픽업이 수요일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가져가는 경우가 다반사. 믿음직스럽지 못한 서비스다. 아예 기숙사 빨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코인세탁소에서 빨래하는 학생들도 많다.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위치이다. 기숙사에서 5분 거리에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이 있다.

나-5. 교내·외 활동

교내,외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행사가 많다. 자신의 펫을 사랑하는 콘테스트나 할로윈파티, 댄스경연대회 등이 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택시비(grab)가 정말 저렴하다. 여럿이 이동할 때는 그랩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말이되면 빅세일을 하는데 이때를 노려서 출국 전 기념품을 사면 된다. 학교 앞에 푸드트럭이 정말 많다. 그 중 5링깃짜리 치킨밥이 정말 맛있다. 또 주변에 알리마주라는 현지음식점이 있는데 유명하다. 한인마트에서 오투기밥, 고추참치 등 한국 음식을 살 수 있다. (주변한인마을: 솔라리스, 하타마스)

햄버거는 할리스 버거와 KGB버거가 최강이다. 강추.

IEP는 3주 수업 후에 (다음레벨로 올라가기 전) 2주간 방학이 있는데 이때를 노려 여행가는 것을 추천한다. 말레이시아는 학기가 종료되면 2주 안에 무조건 나가야하기 때문에 종강 후에 여행하는 것이 촉박할 수 있다. 또 종강 후에는 이미 비자가 캔슬된 상태여서 다른나라 여행이 어렵다. (내 경험담이다. 종강 후 베트남으로 여행하려 했으나, 비자가 캔슬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가는 출국심사에서 거절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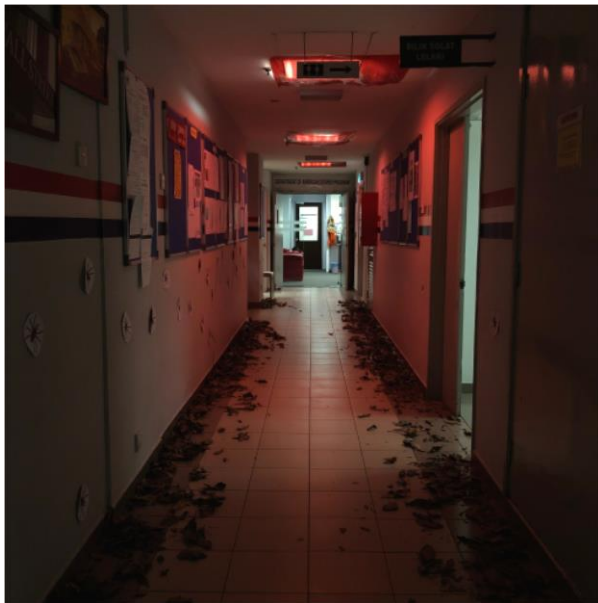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IEP 2주 방학이 2번 있었는데 그 동안 페낭, 싱가포르, 코타키나발루, 말라카, 겐팅 하일랜드 등을 다녀왔다. 싱가폴은 버스를 타고 다 합쳐서 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 (새벽에 버스타면 아침에 싱가폴에 도착이다) 편도 15000원 정도. 개인적으로 비행기보다 버스가 더 편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싶다면 버스를 추천한다. (버스에서 잠도 잘온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입국심사하러 내려야 한다. 말레이시아가 동남아 여행하기 좋은 위치이다. 비행기 표를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적극 활용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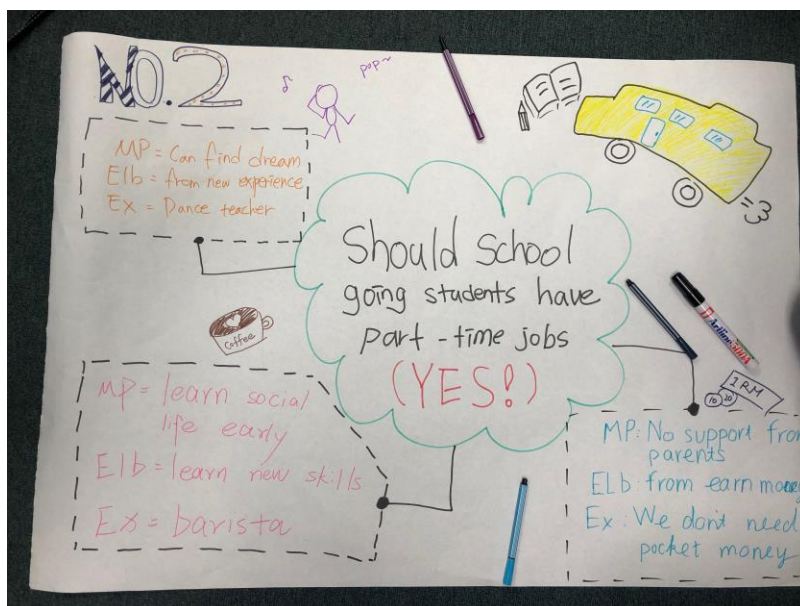
4. 후배들에게 한마디

교환학생 가기 전에는 영어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영어실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가기 전 보다는 향상되었다. 또 그곳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꾸준히 영어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서 느꼈던 일처리의 속도와 질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모든 것을 그러려니하고 받아드려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할로윈 파티



IEP LV5 수업 중



학교 앞 푸드트럭 치킨밥



기숙사내부(마스터룸)